

다산포럼

한국형 방역과 새로운 표준



김항섭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몇 달 동안 지속된 칩거도, 상황이 마무리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버텼는데, 비록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이제 다시는 이전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전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표준이 있었고, 그 표준에 맞추는 것이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보편적인 척도도 자리하던 글로벌 스탠더드는 사실 미국이나 서구의 특수한 이해를 반영한 것이고, 특수성

이 보편성을 잠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 세계에 강요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보편성을 의심하기는커녕 흉내 내고 따라잡는 데 골몰했다. 그 표준은 경제 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우리 삶의 곳곳에 내면화되었다. 독립국인데도 외국 군대가 버젓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강요 또는 내면화가 훨씬 더 심각했다. 그러나 감염병의 재앙 앞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하릴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시장도 작동하지 않았고, G2도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자처하던 유럽도 지역 봉쇄를 비롯한 각종 강제 조치로 허둥했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특수한 이해를 보편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판을 짜고 기준을 만들어 나머지 나라들에 강요되었던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잣대들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이 새로운 표준으로 떠올랐다. 방역도 성공적이었지만, 무엇

보다도 돋보인 것은 그 대응 방식이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지역 봉쇄, 활동 금지 또는 제한 등 강압적인 조치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나 협력을 구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방역은 G2나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대조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부각되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이나 서구 또는 일본의 기준에 매일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G0의 시대이다. 이제 중심은 없다. 대국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안의 식민성을 아픔으로 도려내야 한다. 물론 서구든 다른 대국이든, 그 긍정적이고 앞선 측면은 가까이 받아들이되, 그들의 특수성을 보편화하고 더 나아가 신화화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대체해도 좋을 듯하다. 한글 창제 이후 중화사상, 일제의 탄압, 해방 이후의 또 다른 사대주의,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사대주의를 내면화한

대중매체나 대중문화로 인해 팔시당하고 왜곡당하는 우리의 말과 글에서부터 시작해도 좋다. 실 새 없이 서구 학문과 이론만을 퍼 나르는 학자들, 이른바 '학문의 보따리상'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발을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 국사학이나 국문학 교수를 뽑는 데 영어로 강의를 시키거나, 스페인어 교수를 뽑는 데 영어로 인터뷰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아울러 새로운 표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특수한 경험 또는 기준을 보편적인 것인 양 내세워서도 안 된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제국을 빼자. 70년대 근대화, 새마을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나 신념들,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무자비하게 소외시키고 폐기했던 어리석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명, 근대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 아래 무시되고 방치되었던, 적어도 조선 후기 실학에서 동학을 거쳐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우리의 학문과 사상을 자부심으로 끌어안을 때이다. "오스카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했던 봉준호 감독의 그 당당함을 닮을 때이다.

경제이야기

악마의 재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필자는 안타깝게도(?) 스포츠를 무척 좋아한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안타깝다고?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못하기 때문이다. 테니스는 구력이 20년이 넘고 주말마다 출격하지만, 예외 없이 상대 선수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된다. 골프장에서도 소위 '호경'이다. '현금 자동 지급기' 또는 '도시락'과 동의어다. 당구는 40년째 '탄년' 하수의 또 다른 표현인 '탄년 150'에 머물고 있다. 탁구를 칠 때마다 탁구대가 왜 그렇게 좁아야만 하는지 원망스럽다. 지인들은 필자에게 레슨도 안 받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잘하기를 바라느냐고 핀잔을 준다. 웃기지 마시라. '너튜브'도 자주 보고 거실 천장을 골프채로 망가뜨

리기도 한다. 나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 '운동 센스'가 남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아우타이어' (2009)의 저자 팔꿈 글래드웰은 특정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의 경지에 오른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해 유명세를 탔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뜻이리라. 일견 그럴싸해 보인다.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어느 분야건 '악마의 재능'을 타고난 '재수행이' 천재들이 있기 마련이다. 천재들은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노력형 둔재들을 쉽게 따돌린다. 필자같이 운동 신경이 부족한 자가 축구에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되겠는가? 비틀즈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음감으로 대중 음악계를 평정했다. 70~80년대 일류 프로바둑 기사들은 대부분 일반 유학을 다녀왔으나 가난 때문에 정석도 못 배웠던 서봉수는 동물적인 실전 재능만으로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김홍

국은 대본을 외우기는커녕, 졸다가도 대충 한마디 툭 던질 때마다 웃기는 재주가 있어 TV 예능의 시청률 보충 수표였다. 국가간 무역에서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산업을 보유한 경우,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한다.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쌀 생산은 드넓은 평야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고, 산유국들의 석유,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생산도 다른 나라가 죽도록 노력해도 당할 수가 없다. 서론이 길었다. 광주·전남 경제도 다른 지역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면 한결 편하게 앞서 나갈 수 있다. 필자가 꼽은 우리 지역만의 '악마의 재능'은 무엇인가?(이미 궤도에 오른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은 논외로 한다.) 첫째 '섬 관광'이다. 2200여 개의 섬(전국의 65%)을 보유한 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255만 명으로 경기도(7703만 명)에 이어 두 번째인 이유도 여수 밤바

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압도적인 해양 관광 자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남도에 서 추진중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다. 두 번째는 '청정 에너지' 산업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과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에너지 기술 생태계 조성이 타 지역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전남의 일조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도 쉽게 앞서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음식'이다. 우리 지역 음식 맛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전국의 미식가들로부터 최고로 평가받는다. 여행객들은 맛집을 검색할 필요조차 없다. 맛있는 식당은 금방 퇴출될 정도로 모든 음식점이 맛집이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한 목포시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자원은 한정돼 있다. 적은 자원 투입으로도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비틀즈, 서봉수, 손흥민을 찾아라. 운동 신경 부족한 필자처럼 백발 노력해도 따라가기 힘든 '비교 열위' 산업을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기 고

차세대 가속기 꼭 구축해야 한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

지난달 초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후보지 선정에서 최종 입지로 수도권 접근성에서 우위를 보인 충북 정주가 결정됐다.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호남권 유치에 올인했지만, 결국 빛가람 혁신도시가 탈락했다. 균형 발전 가치는 외면한 채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지가 정해진다 대하여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표출됐다. 선정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조 원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불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국책 사업 공모에 응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한번 내려진 정부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행히 전남도지사가 방사광 가속기

추가 구축에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과기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기일전해 훗날을 기약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필자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바라는 지방 대학의 교수이자 한전공대 설립 범시민지원위원회의 연구소 유치 분과위원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가속기 연구 시설 현장 답사 경험과 과학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어가겠다. 우선 '방향성'이다. 최근 확정된 청주(오창) 가속기는 상업용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다. 확장성 측면에서 입지적 한계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유일의 가속기 단지인 경북 포항에는 상업용 가속기뿐만 아니라 가속기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 대한민국 제1의 가속기 클러스터인 셈이다. 따라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추가로 구축할 가속기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제2의 가속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6GeV 방사광 가속기 유치 속도를

늦추라는 말이 아니다. 방사광 이외에도 다양한 입자 가속기 시설을 병행 구축하고, 가속기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조성된 가속기 클러스터는 한전공대와 함께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 R&D 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랜드비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추가 가속기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 한마디로 '전문가 패싱 경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비롯해 IBS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 인정하는 가속기 분야 국내외 최고 석학을 헤드 헌팅하고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유치전에서 패싱된 인사나 기구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랜드 비전 수립과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거버넌스'다. 대형 국책 사업 유지에 정치권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번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3개 시·도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나서

간간힘을 썼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궁금하다.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가 구축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두 사람이라도 발을 빼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경쟁 상대였던 충북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충북은 2008년 유치 실패 이후 12년간 절치부심하며 재수한 끝에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거머쥐었다. 구축에 8년 정도 소요되는 차세대 가속기 유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남도가 광주·전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 부처, 국내외 연구 기관, 한전 및 한전공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호남권 국회의원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 가속기 추가 구축을 꼭 성사시켜 주길 바란다. 우리에게도 재수 끝에 성공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사례가 있지 않은가.

社說

느슨해진 학교 방역 체계 이리다 큰일 난다

광주 지역 중고생 두 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놓고 최근 방역 당국이 수차례 오락가락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으나 결국 음성이라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이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진료소가 아닌 자택으로 귀가시킨 것으로 드러나 초기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그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광주 코로나19 감염 의심 학생 두 명의 검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가짜 양성'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내려져 할 것이 양성으로 잘못 나왔다는 얘기가. 앞서 광주에서는 중학생 A군과 여고생 B양 등이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시행된 네 차례 재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헌신이 가중됐다. 이로써 판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의심 환자로 분류·검진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이 교육부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지

난달 20일부터 단계별 개학이 진행되자 미약한 증상만 있어도 학생들을 선별진료소로 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명 모두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단지 귀가 조치만 했다. A군은 지난 8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학교 보건실을 찾았다가 조퇴해 귀가한 뒤 사흘이 지난 11일에야 서광병원 선별진료소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B양도 지난 10일 미열과 두통이 있어 조퇴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새벽에야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이들 사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상태를 적극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진료를 독려했다면 보다 빨리 대처함으로써 혼선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증상 점검과 진료 의뢰 등 지침을 철저히 지켜 지도록 하는 등 느슨해진 방역 체계를 다시 다잡아야 할 것이다.

벽에 부딪힌 민간공원 사업 묘수를 찾아라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국토부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불가 방침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시는 국토부를 찾아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국토부 측은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HUG 측은 오히려 평당(3.3㎡) 최대 2046만 원대로 책정해야만 사업성이 있는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해 평당 1474만 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부 시물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1년이 넘었을 때 주변 아파트 대비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내부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에 나선 중앙공원 1지구인 근 모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470만원

이었다. 아직 확정된 평당 가격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최종 분양가도 시물레이션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광주시로서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가 지난해 6월 HUG 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의 고분양 배경 등 특수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서 간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인데, 어찌 됐든 중앙공원 개발자 측은 고분양가 제한을 받는다면 적자 우려 때문에 자금투자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양가 제한 해제는 주변 부동산 가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디 신의 한 수를 찾길 바란다.

無等鼓

200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바나나. '선우엄마'는 동네 슈퍼에서 값비싼 바나나를 바라보며 현장을 망설인다. 결국 없는 살림이지만 큰 맘 먹고 바나나 한 개를 산다. 이를 받아든 아들은 바나나를 이등분해 한쪽을 어린 여동생에게 먼저 준 뒤, 나머지를 똑같이 나눠 엄마와 함께 먹는다.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힌 딸을 찾아가는 엄마 손에 들린 것도, '택이'가 선물로 받은 과일 바구니에서 '덕선이'를 생각하며 따로 챙긴 것도 모두 바나나

나와 비교할 수 없었다. 생강파 파초과에 속하는 바나나 원산지는 남아시아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재배되며 차츰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서인도제도,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해남산 바나나가 다음 달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해남군 북평면의 신웅군·홍흥군 부부는 지난해 600평 규모 시설하우스 내에 바나나 나무 470주를 심었다. 1년 만에 5~6m 크기로 자란 나무에는 바나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오는 7월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는 내륙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나나 농사여서 특히 눈길을 끈다.

해남산 바나나

지난 2015년 인기리 해남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드라마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다. 극 중 인물 간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연출하면서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바나나는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값비싼 과일이었다. 귀한 과일이어서 선우네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맛볼 수 있었다. 추석 무렵 성모길에 흔히 접하게 되는 으름을 우리는 '한국 바나나'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맛은 바나나

열려, 오는 7월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는 내륙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나나 농사여서 특히 눈길을 끈다. 물론 이번이 첫 국내 재배는 아니다. 일찍이 1980년대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해 국내산 바나나 시대를 열었지만, 1991년 농산물 수입 개방 조치 이후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작물 지대가 바뀌고 있다. 앞으로 '해남산 바나나'가 국내 과일 시장에서 당당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195)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0-0663	사진부	220-0694	227-9600 업무국
220-0652	체육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4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